

오피니언

월/요/광/장

최 병 식



요즘 '검증 논란'이 드세다. 정치적으론 유례가 없는, 비정치인이 갑자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로 등장하면서 생긴, 이른바 '안철수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을 끔을 수 있다. 공공을 앞세우고 반직과 특권 없는 사회를 논하며 젊은 세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안 교수의 존재는 구태정치의 혼과라는 상황 속에 부각된 것이다.

안 교수는 이미 '안종'을 통해 소통의 리더라는 이미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룸살롱 출입 논란'에 이어 최근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받은 스黠음선(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 수억 원의 차액을 남겼다는 등의 의혹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검증 과정에서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치에 있어 검사하여 증명하는 일인 '검증(Verification)'은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하물며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인물을 바르게 검증하자는 논란은 극히 당연하고 중요하다.

문제는 중요성에 비하여 실제 '을바른

자격을 검증하는 일은 일반적 타 검증과 달리 나이도 크고 그 성격도 다르다. 즉 정해진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없고 평가보다 상위인 최고 지도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대개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용 네거티브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비자(韓非子·內儲說)에 삼인성시호(三人成市虎)라는 말이 나온다. 세 명이

제를 결정짓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유념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태도는 인지적 객관과 정의(情誼)적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투표행위로 나타나는데 이 중 영향력이 큰 쪽은 아무래도 정적 요소인 호감 여부이고, 이 감은 한번 갖게 되면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인지적으로도 사람들은 구두쇠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의 인지 용량은 지극히 적어 단기 기억 용량이 5~9개에 불과하다. 이것도 정보처리를 할 때는 그 용량을 100% 활용하는 것이 귀찮아서 1~2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경향이 크다. 이도 걱정이다.

이래저래 이번 검증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래도 미래의 우리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일 아니니 구두쇠이기보다는 우리 모두 '인지적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 논란을 잘 지켜보아야겠다.

〈초당대학교 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적 구두쇠와 검증

검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검증에 관련된 용어만 해도 인증, 인정, 사증, 검사, 증명 등으로 다양하고 그 차이가 미묘한 것만 보아도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물 검증, 특히 공인의 자격 검증은 더 어렵다. 평가하는 사람, 평가 받는 사람, 그 내용 등이 매우 복합 다기하고 서로 이해가 극명히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과 같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모두 끝이 박게 된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하면 믿게 된다는 말이다.

검증에서 새겨야 할 말이다. 특히 종합 풍선태율을 비롯한 수많은 특정 언론 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겐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자격 검증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유권자의 투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투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끈

수 있게 됐다. 업무량의 폭주를 걱정해 보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는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 수급자 이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재무자, 이미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대로 받아 더 이상 손을 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재무자들이 신청서 작성 을 의뢰하기 위해 주위에 마지막 도움을 청했다거나, 심지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담담한 마음마저 듣는다.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라도 안내 문을 찾을 수 있었던 타인데, 조금 더 알아보지 않은 탓에 병을 기운 경우다.

법원은 올해 4월부터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새로운 개인파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접수에서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됐고 제도의 낭용도 쉽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8월에는 예규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지원 단위까지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를 위촉했고 직권 소송구조 결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신속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법원의 준비는 마무리됐다. 아무쪼록 '성실하지만 불운한' 재무자들이 잘 알아보기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법원 문을 두드리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지법 개인파산·회생단독 판사〉

법조칼럼

아는 것이 병



한 지 혜

식지우환(識字憂患).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다.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됨을 이룬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우리 속담과 같은 뜻이다. 법원에서 개인파산·회생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아는 것이 병'이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요즘은 누구나 돈을 빌려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로 "0%로 ○○○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자가 날아온다.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큰돈도 선뜻 빌려 준다. 버는 것보다, 가진 것보다 많이 쓰게 되더라

도 돈을 갚아 나가는 법을 알고 있으니 걱정이 없다.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현금서비스, 차량 담보 대출, 보험 약관 대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놀라막기 기법을 찾을 수 있다.

너무 많이 쓴 나머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돈을 안 갚거나 천천히 갚는 법을 알게 된다. '신속 진행', '100% 탕감' 등 점잖은 문구들부터 '아직도 빚을 갚고 계십니까'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까지 다양한 광고 문구들이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소개해 준다. 언뜻 보면 남의 돈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병'인 듯하다.

과연 그럴까. 복리의 무서움을 미처 알아 차리기도 전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이미 법원에 오기 한참 전의 일이나 어쩔 수 없고, 가족의 우환이나 사업 실패 등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일이나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을 해 병을 키우는 사람이 많으니 담당 판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된다고 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할 때 나오는 말이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했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자료를 더 내고 설명을 하냐는 것이다. 간혹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십중팔구 '잘못' 신청한 경우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가족 이름으로 숨겨둔 부동산이 밝혀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면책에 이를 수 없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그랬든, 잘 알아보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상담을 받은 탓에 모르고 그랬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됐으니 아는 것이 병이 된 것이다.

한편 신속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법원의 준비는 마무리됐다. 아무쪼록 '성실하지만 불운한' 재무자들이 잘 알아보기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법원 문을 두드리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지법 개인파산·회생단독 판사〉

기고



강 성 휘

지난달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잡고 보니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 시기였다.

전남을 보면 매년 2000명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좀더 폭넓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주 사례처럼 돌아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도 전남 전체 학생은 27만656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25만9737명으로 한 해 사이에 무려 1만919명이 줄었다.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은 뇌피로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전남의 경우 2010년도에 2098명의 초·중·고생이 학업을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중단했는데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29명이 늘어난 2127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들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은 1486명인데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이 있는데 그 중 학교 부적응이 768명(52%)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러한 학생들이 가는 곳 중 하나인 대안학교가 도내에 7곳이 있는데 작년 기준 이들 연간 수용하는 학생은 전체 학업중단학생 2127명의 11%인 24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880명 중 일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두드림 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지만 다수는 그냥 알아서 험자 살거나 사회의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져 있다.

결국, 제도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도내 전체 학생 25만9737명의 0.82%인 2127명이 작년 학업중단 학생이다. 그런데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2조 9126억원의 0.0036%인 1억700만원에 불과

하다. 도정의 경우도 5조7365억원의 0.03%인 1인50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쉼터 등에 지원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예산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0.82%라면 예산도 어느 정도 상응해야 하는데 0.0036%, 0.03%밖에 되지 않으니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 2조9000억원의 0.82%는 240억원이다. 그런데 1억700만원이 연간 대안학교 지원액의 전부라는 것은 너무하다.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의 사례처럼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많은 경우 가족과 사회로부터 동시에 방치되기에 때문에 고립감, 무력감, 공격성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 성향을 갖게 될 우려가 높다. 또 폭력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매체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대되어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의식 및 일탈 행동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져 반사회적 행동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대안학교들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대

폭 늘려야 하며,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자체와 청소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돋는 두드림존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 흐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행동의 일환으로 청소년관련 공무원, 청소년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과 함께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물어볼 것도 없이 참석자 모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지원과 복지정책을 잘 수행하여 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전남도 의원〉

우수인재 이공계 진학하도록 학문·사회적 환경 만들자

일전에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과 학생재가 이공계 학과를 포기하고 다른 대 학의 치과대학에 진학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물론 좋은 일로 유명해진 일은 아니었다.

또한 비슷한 때에 서울대학교 이공계에 수시 학과에 학생의 학부모는 자식을 아예 의대에 보내겠다며 학과를 취소해 달라는 시위를 벌여서 온 나라 신문과 방송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번 2012년도 수시와 정시모집 대입시에 나타난 일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와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공계 기피는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일이다. 지방 의대 입학생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가 서울 명문대 이공계 입학생의 점수 보다 높은지도 한참 됐다. 물론 그런 개인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다. 또한 의대가 이공계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의대 졸업 현상이 지나치다는 게 문제이다. 즉 이공계의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걱정스러운 일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 등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 경제 사정이 젊은층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고, 취업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공계 기피가 갑수록 커지면 자

체조업 중심의 국가발전 티켓을 무너뜨리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이 것도 잘 살펴보면 유념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태도는 인지적 객관과 정의(情誼)적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투표행위로 나타나는데 이 중 영향력이 큰 쪽은 아무래도 정적 요소인 호감 여부이고, 이 감은 한번 갖게 되면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인지적으로 사람들은 구두쇠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의 인지 용량은 지극히 적어 단기 기억 용량이 5~9개에 불과하다. 이것도 정보처리를 할 때는 그 용량을 100% 활용하는 것이 귀찮아서 1~2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경향이 크다. 이도 걱정이다.

또한 인지적으로 사람들은 구두쇠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의 인지 용량은 지극히 적어 단기 기억 용량이 5~9개에 불과하다. 이것도 정보처리를 할 때는 그 용량을 100% 활용하는 것이 귀찮아서 1~2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경향이 크다. 이도 걱정이다.

시 실

태풍 전남권 진입, 피해 대비 만전 기해야

16호 태풍 '산바'가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전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초강력 태풍 '불리번'과 접종 호우를 동반했던 '센비'으로 수천 여명대의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으로선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기상청에 따르면 산바는 중심기압 935hPa에 최대 풍속 초속 48m로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풍 반경은 420km로 크기는 중형이라고 한다. 산바는 오늘 오전 9시께 서귀포 동쪽 약 70km 부근 해상에 진입한 뒤 오후에 전남 남해안을 통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 등지에는 순간 초속 5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많은 곳은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가 따라온 폭우와 더불어 차관과 지하관, 배수관 등이 침수되거나 침수되는 경우에 차관과 지하관은 차관과 지하관을 통해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차관과 지하관은 차관과 지하관을 통해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차